

中国“大幅度限制稀土类开采”，开始了资源武器化

MARCH 13, 2012 08:31 高其正 (koh@donga.com)

中国决定大幅度限制国内的稀土类开发。这展露了将半导体等尖端产品制造中必须的稀土类作为经济武器的意图。

12日根据官方新华通讯，全国人民代表大会（全国人大）10日召开会议，表示为了矿山周围地区的环境保护，强化稀土类采矿的许可。中国已经在去年10月份发表“稀土工业污染排除标准”，对于稀土类矿山的污染水排出等制定了严格的基准。也曾决定从2010年到今年3月31日，原则上不接受稀土类矿山采矿申请。

这次在全国人大再次拿出稀土类开发限制方针，可以分析为重新确认之前措施的同时附加环境费用等，减少生产量，提高国际行市。细节措施将在国务院或地方政府进行具体化。

稀土类的产地江西省寻乌县的副县长廖丽萍当天在会议上指出：“1970年到以后因为稀土类的过度开采，对于邻近的广东省、香港的饮用水安全造成了影响。”

中国占世界稀土类供应的90%。因此这次措施会给国际行市造成影响。新华通讯预测目前稀土类价格没有包括“环境原价”，廉价稀土类时代将会结束。江西财经大学书记廖进球预测：“为了环境保护的开采量减少是必然的，供求构造的变化会导致价格波动。”

中国之前也以环境保护为理由限制了出口，从美国、欧洲等受到了建立“稀土类万里长城”的指责。2010年与日本发生钓鱼岛纷争的时候曾中断对日稀土类出口。

另外，华尔街日报11日报道说，美国的主要稀土类生产上莫利科夫为了应对中国的生产限制，收购加拿大的全球稀土类处理公司“Neo Material Technologies”公司。莫利科夫因为本次并购，要把从加利福尼亚矿山开采的稀土类原料移送到“Neo Material Technologies”的中国分公司进行处理。

중 희토류 채굴 대폭제한 자원무기화 발톱 세웠다

MARCH 13, 2012 08:31 고기정 (koh@donga.com)

중국이 자국 내 희토류 채굴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제품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경제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10일 회의를 열고 광산 주변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희토류 채굴 인허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작년 10월 희토 공업오염물 배출 표준을 발표해 희토류 광산의 오염수 배출 등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 2010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희토류 광산의 채굴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전국인대에서 또다시 희토류 채굴 제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기존 조치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환경 비용 등을 추가로 부가해 생산량을 줄이고 국제 시세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부 조치는 국무원이나 지방정부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산지인 장시 성 쉰우 현의 라오리핑 부현장은 이날 회의에서 1970년대 이후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근 광둥 성이나 홍콩 등의 식수원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현재 희토류 가격에는 환경 원가가 계산돼 있지 않다며 값싼 희토류 시대가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오진추 장시재경대 서기는 환경 보호를 위해 채굴량 감소는 필연적이며 수급 구조의 변화는 가격 파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해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희토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일본과의 닌텐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 때는 대일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희토류 생산업체인 몰리코프는 중국의 생산 통제에 대응해 캐나다의 세계적 희토류 처리업체인 네오 머티리얼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몰리코프는 이 계약으로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캐낸 희토류 원료를 네오머티리얼의 중국 지사로 옮겨 처리하게 된다.